

## 우즈겐 교회 자립을 위한 겨자씨 펀드

■ **펀드 목표** : 겨자씨 펀드를 통하여 우즈겐 현지인 교회가 자립(재정적으로 스스로 자립)하는 건강한 현지 교회로 세워가도록 돕는 펀드이다.

■ **펀드 규모** : 한 펀드당 5,000달러, 총 2개 펀드 목표

■ **펀드 참여방법** : 가능한 만큼 십시일반으로 펀드 금액을 모금하여 운영을 한다.

### ■ 왜? 펀드가 필요한가?

지난 10월 11일에 키르기즈스탄의 사회발전부 장관은 38%의 국민이 가난하고, 4.4% 국민은 극빈자라고 발표하였다. 한 달에 44불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오쉬 인구는 51.4%이고, 그 가운데 3.7%의 오쉬 인구는 한 달에 26\$ 이하의 수입으로 산다고 발표하였다.

우즈겐 성도 7-8 가정의 생활을 볼 때, 가정마다 편차는 있지만 한 달에 50불 정도의 수입으로 최소 4명에서 6명의 가정이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. 이 상황에서 우즈겐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.

최소한 우즈겐 성도 가정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, 기초를 세워준다면 성도들의 가정도, 우즈겐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한다.

### ■ 펀드 운영 방법 :

조성된 펀드 운영을 위하여 먼저, 함께 사역하는 팀 멤버들과 협의하고, 다음에는 우즈겐 사역자 그룹에서 토의하여 비즈니스 은사가 있는 지원 가정을 선정하고, 선정된 가정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도모하여 운영하도록 하다.

1. 선정된 가정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선택하고
2. 펀드를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
3. 매월의 수입 가운데 일정액(100-200불)을 펀드로 상환하고
4. 매월 수입의 십일조를 교회에 헌금하도록 약속하여, 우즈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운다.
5. 첫 번째 지원 가정이 펀드를 모두 상환하면, 다음 지원 가정을 선정하여 펀드를 재운영한다.

### ■ 펀드 운영 위험성 :

1. 지원 받은 성도가 비즈니스를 실패하였을 경우
2. 지원 받는 성도가 시험 들 수 있는 경우 - (예) 믿음을 버리는, 관계를 끊어버리는
3. 선교사가 물질(돈)만 지원해 주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
4. 예상하지 못한 경우

-> 예상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실패가 발생할 수 있지만, 이를 위하여 선교사 혼자 결

정하거나 진행하지 않고, 함께 사역하는 팀과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, 기도하고, 동역하면서 함께 운영함으로 실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
-> 그러나, 어떤 경우에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.

->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를 운영해야 할 이유는 이 방법 외에는 현지인 가정과 현지 교회가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, 스스로 자립하여 건강한 현지인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.

## ■ 펀드 운영 기간 :

펀드 운영은 무기한으로 운영하고자 한다. 첫 번째 지원 가정이 매월 100불씩 펀드를 상환한다고 가정하면, 첫 번째 지원 가정이 펀드를 모두 상환하는 기간이 50개월이다.

첫 지원과 두 번째 지원 사이에 최소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. 따라서 펀드를 2개 조성하여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. 첫 번째 펀드가 채워지면 팀과 현지인 사역자와 상의하여 펀드 운영을 바로 시작하고, 두 번째 펀드가 또 채워지면 두 번째 지원 가정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
## ■ 펀드 운영 이후 :

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, 펀드 운영 이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. 특히 선교사가 현지를 떠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?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. 이 경우, 선교사가 현지를 떠나더라도 소속된 팀은 계속 유지되어 사역하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. 펀드 운영을 선교사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에서 팀 사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, 펀드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(우즈겐의 모든 성도들이 자립하고 우즈겐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는)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이 문제 또한 팀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, 펀드를 확장하여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지원하거나 혹은 교회를 건축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, 차후에 팀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.

## ■ 펀드 운영의 예

현재 현지인 사역자 가정이 차를 구입하여(마티즈, 3,500불) 주중에 3-4일 정도 택시로 일을 하고 있다. 하루에 약 1,000숨(20불)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,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일을 하면 300불에서 400불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. 그 가운데 100불 정도를 펀드로 상환하고, 나머지 수입을 생활하는데 사용하면 펀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.

문제는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. 현재 현지인 사역자는 마티즈를 외상으로 구입하여, 11월 말까지 1,800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. 펀드가 조성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처럼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.

(현지에서 가능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택시업과 양계장 그리고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것인데, 각각 5,000불 정도의 기초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)